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 제19권 제16호, pp. 471-494.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6.471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의 국내 연구동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수민(인하대학교)**
김영순(인하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선행 논문들을 토대로 분석틀을 만들어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과 미술치료를 통한 기대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임상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논문들은 2006년부터 2018년에 출간되었고, 국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인 Riss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학위논문들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정보 (발행연도, 발행처), 연구 대상, 연구방법(연구방법론, 주요변수), 프로그램(치료기법의 융합, 회기, 핵심어 분석)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2011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고, 2016년까지 연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후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의 자녀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주요변수와 치료기법의 융합여부에 따라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할 수 있었다.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토대로 구성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내담자에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논문의 핵심어들 중 집단미술치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집단미술치료는 내담자들이 구성원 간의 서로 격려를 받아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혼합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과 비교하면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된 논문들의 양이 부족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방법론만을 사용하였을 때 연구를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집단의 역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장점을 이용하여 보완해야 한다.

★ 주제어: 다문화 내담자, 미술치료, 심리적 어려움, 집단미술치료, 탐색적 연구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5802).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sumin194@gmail.com)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kimysoon@inha.ac.kr)

1. 서 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다문화 배경을 지닌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향을 배경삼아 2006년부터는 한국의 다문화 인구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여 본국에서 이민 온 결혼이주여성, 본국에서 나와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부류의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고 있었다(김경미, 이은주, 2018; 권복순, 2010; 김선현, 류경희, 최순주, 2009). 그들이 타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상담에 대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 내담자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인구 중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프로그램에 내담한 사람을 의미한다(류진아, 2018). 일반적 상담은 주로 언어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왔기에, 언어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내담자에게 효율적이지 않다. 표현예술치료 중 하나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미술도구라는 매체를 통하여 그들의 무의식으로부터 그들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게 도와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내담자들에게 그들의 내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문화 상담에서의 에틱 접근(Etic Approach)에 따르면, 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Choudhuri & Santiago-Rivera & Garrett, 2012). 하지만, 다문화 내담자에게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에 언어적 보다는 비언어적 소통을 통한 미술치료가 화두 되고 있다.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공간에 통제적이지 않기에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이근매, 2014). 미술치료는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내담자에게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의 형태는 주로 집단미술치료로 구성되었다. 이는 다문화 내담자끼리 교류를 하여 내담자 본인의 어려움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이근매, 2014). 집단미술치료는 내담자가 다른 구성원의 긍정적 행동을 모방하고, 기대하는 치료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Yalom & Leszcz, 2005).

국내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상담을 연구한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2009)는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상담 관련 논문들을 토대로 현황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예술치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상담 관련 논문들을 포함하였다.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2009) 연구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치료 관련 현황 분석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일반 대상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와 비교했을 때도, 다문화 내담자에

대한 미술치료 연구는 부족하다. 한국의 다문화 상담에 관한 연구는 2009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상이다. 국내의 다문화 내담자 대상의 미술치료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다문화 내담자들의 심리적 결핍을 탐색해야 한다.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을 분석해야 한다. 현재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충분치 않았다.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문들을 통하여 한국의 다문화 인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탐색하고, 그들을 위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 미술치료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이민자를 위한 미술치료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술치료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로는 한국 미술치료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기정희 외(2011)와 이수은(2011)의 연구,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표현예술치료 개입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한 류진아(2018)는 거의 유일하게 다문화 내담자를 중심으로 한 예술치료 동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류진아(2018)의 연구는 본 연구의 취지와 유사하나, 미술치료만이 아닌 표현예술치료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표현예술치료는 미술치료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범주이고, 놀이치료, 음악치료 등도 포괄하는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류진아(2018)와 기정희 외(2011)으로부터 차별을 두어, 미술치료의 장점에 집중하고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다문화 내담자 대상을 위한 국내 미술치료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이들은 개별 다문화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 구성되어왔다. 연구들은 개별 내담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치료기법을 융합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다문화 내담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다문화 내담자들이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회기별 변화를 탐색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이민의 동기, 이유, 직업 등 기준으로 다문화 내담자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 유형을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난민,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내담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논문들을 근거로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의 구성 그리고 연구 대상의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술치료에 관련된 국내의 학술지 논문을 토대로 미술치료 프로그램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국내의 다문화 내담자의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의 다문화 미술치료 관련 프로그램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요하는 내담자의 내적 갈등을 개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법이다. 미술치료는 표현 예술치료의 한 형태로써, 지원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미술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술치료는 방어기제 분석을 통하여 내담자들로부터의 저항을 다루며, 라포 형성을 돕는다. 미술치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다(이경원, 2013).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술 재료를 통하여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낙담을 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미술치료 동안에 쉼을 누릴 것이다(Waller & Dalley, 1992). 내담자는 미술치료 속 미술작품 창작을 통해 언어적 표현보다 시각적 표현으로 인해 본인의 문제, 고통, 상황 등을 재인식하며 수용한다(정여주, 2016).

Kramer의 입장에 따르면, 내담자는 미술치료 과정을 통해 내적 갈등을 승화하며 심리적 해방감을 경험한다(정여주, 2016; Waller & Dalley, 1992).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문화 내담자에게 내적 갈등을 승화시킬 수 있는 미술치료가 요구된다. 다문화 내담자의 어려움은 다양하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등이 있다. 현재 다문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민자들은 원활한 상담을 이루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적합하다. 그들은 언어 장벽을 가지고 있기에, 언어적보다는 비언어적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다문화 내담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담과 달리, 미술치료는 간섭받지 않고 의사소통과 창의성 발달을 위해 풍부한 비언어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이근매, 2014).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는 내담자가 본인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치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담가의 직접적 개입이 적다. 다문화 내담자에 대한 미술치료를 활용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은 주로 집단미술치료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집단미술치료는 내담자들이 다른 내담자들을 지지하여, 치료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왕금미, 오영훈, 2016; Yalom & Leszcz, 2005).

국내에서 미술치료가 소개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미

술치료는 다문화 인구를 포함하여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넓은 범주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행해졌다.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국내 미술치료 관련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국내 미술치료에 관한 연구는 일반 심리상담 분야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지만, 꾸준히 증가되었고 2010년 이후로 급증하고 있다.

2. 분석 기준

국내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의 동향을 연구하기 위해, 미술치료 및 상담 분야 관련 탐색적 연구 논문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비교했을 때 개별 논문들은 차이점을 가졌지만, 미술치료라는 상담기법 혹은 다문화 내담자를 대상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 기준은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는 국내 다문화 상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연구시기 변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논문들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이후 다문화 상담 관련 동향연구 발전에 기반을 제공하였다. 기정희 외 (2011)는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 미술치료 관련 동향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발행연도, 연구방법론, 대상, 치료목적 등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이수은 (2011)은 국내 미술치료 관련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발행연도, 대상, 연구주제, 편수 등을 분석하였다. 김미진, 강영주 (2014)는 발행연도, 대상, 연구방법론, 연구 주제 등을 분석하여, 아동미술치료의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해 탐색했다. 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8)는 해외의 이야기치료 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발행처, 발행연도, 연구 영역, 연구 참여자, 주요 변수, 연구방법론, 주요변수 등을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기존 논문들은 대상과 분석기준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향후 국내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 기준의 토대가 되었다. 미술치료, 이야기치료 등 다양한 예술치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국내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동향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들은 예술치료와 상담 분야에서 속하고, 내담자를 위해 프로그램 구성을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분석 기준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절차와 대상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을 토대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학술지 논문들은 국내 데이

터베이스 홈페이지인 Riss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논문들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출간된 논문들이다. 이들은 '다문화'와 '미술치료'의 핵심어로 Riss를 통해 검색한 결과로써 박사 학위논문 보다는 석사 학위논문들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며, 96편의 논문 모두 석사 학위논문에 해당되었다. 이 석사 논문들은 2006~2019년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 기반으로 연구 동향을 탐색함으로써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분석논문으로써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였고, 석·박사 학위논문들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월 3월 중순 학위논문(석사와 박사)의 논문보다는 학술지에서 검증받은 국내의 논문들을 위주로 검색했다. '다문화'와 '미술치료' 그리고 '미술치료'의 핵심어로 Riss에서 두 차례 검색을 하였을 때, '다문화'와 연관된 검색으로는 국내 학술지 논문 기준으로 63건, 그리고 '미술치료' 만으로 검색하였을 때 4,666건이 나왔다. '미술치료' 핵심어를 이용한 검색결과를 토대로 비교하였을 때, '다문화'와 '미술치료' 핵심어와 관련된 논문들은 약 1.35% 정도의 비율만 차지하고 있었다. 그 후 '미술치료'와 '중도입국'을 검색한 후 15건, '유학생'과 함께 검색한 후 6건, '새터민'과 함께 검색한 후 5건,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검색한 후 5건, '국제결혼'과 함께 검색한 후 2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검색한 후 1건, '난민'과 함께 검색한 후 1건이 나왔다.

Riss를 통한 검색결과에서는 포함이 되어있지만, 실제로 연구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논문의 원문을 찾지 못하였다. 검색결과에는 미술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약한 논문들도 같이 검색되었다. 이러한 논문들은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기에 제거되었다.

총 64편의 논문들을 발췌하였다. 이 중 KCI에 등재되어있는 논문은 35편, KCI 등재 후보에 있는 논문은 17편, 그리고 그 외 일반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12편이었다. KCI 등재 혹은 등재 후보에 있는 논문들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했고, 그 외에 일반학술지에 투고된 논문들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53편의 논문들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기존의 미술치료 및 상담 분야에서의 다문화 내담자 관련 연구 분야의 탐색적 연구 혹은 동향연구 논문들을 토대로 연구자가 설정한 준거에 따라 연구하고 분석한다. 더불어 다음 <표 1>과 같은 분석 준거 틀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1> 탐색적 연구에 대한 준거 기준

연구자	대상 (연구기간)	분석기준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이주민 (~2008)	대상, 주제, 연도 등
기정희 외 (2011)	한국의 미술치료 (1994~2010)	연도, 방법론, 대상, 치료의 목적 등
이수은 (2011)	한국 미술치료에 대한 석사 학위논문(2001~2011)	연도, 대상, 연구주제, 편수 등
김미진, 강영주 (2014)	어린이 (2004~2013)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징, 프로그램 당 연구 참여자 수, 방법론, 연구의 내용 등
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8)	해외 이야기치료에 대한 석·박사 학위논문 (1995~2017)	발행처, 발행연도, 심리학의 연구영역, 연구 참여자, 표본크기, 연구방법론, 주요변수 등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7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통해 빈도, 비율 등을 제시하여 기초적인 통계로서 제시할 것이다.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 내담자별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융합된 모형을 분석하여 연결성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분석 준거는 학술지 논문들에서 제시된 핵심어들을 통해 이민자 대상의 미술치료의 주요 담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핵심어의 빈도수와 핵심어들을 분류하여 경향을 파악할 것이다.

3. 분석 방법

동향연구는 특정한 분야에서 다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형성된 준거 틀에 따라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방법이다(김용숙, 성영란, 유지은, 2015). 분석대상이 되는 기존 논문들을 귀납적인 방법을 기반을 둔 내용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창출한다(김종훈, 2014).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미술치료와 상담관련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논문들을 통하여, 1차적으로 4가지 상위 범주(기본정보, 연구 대상, 연구방법, 프로그램)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상위 범주를 기준으로 분석대상인 총 53편의 논문을 귀납적인 방법을 통하여 2차 범주를 도출하였다. 제1연구자는 2차 범주화로부터 도출된 하위범주들을 공동연구자와 협의를 통하여 보완하였고, 분석을 위한 최종적인 범주틀을 다

음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탐색적 연구에 대한 준거 기준

범주		내용
기본정보	발행연도	· 2006~2018 연구 양상 분석
연구 대상	연구 대상	· 다문화 내담자별 분류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새터민, 난민) · 발달단계별 분류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 연령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 · 미술치료 프로그램별 연구 대상 수
연구방법	연구방법론	· 양적 연구방법론, 질적 연구방법론, 혼합 연구방법론
	주요변수	·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기대되는 효과
프로그램	치료기법의 융합	· 융합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종류
	회기	· 회기의 횟수
	핵심어 분석	· 개별 논문의 핵심어 정리 및 분석

<표 2>와 같이 연구 동향 분석틀은 4개의 상위 범주와 7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이 범주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발행연도 분석은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 동향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 대상 분석은 미술치료 프로그램 내 연구 대상에 대한 특징을 보여줄 것이다. 연구방법 분석은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관련 논문들 간 연구방법론 관련 주요양상을 탐색할 것이다. 프로그램 분석은 다문화 내담자의 특징에 따른 미술치료 프로그램 구성과 핵심어 분석을 통한 다문화 내담자별 국내 미술치료의 연구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Ⅳ. 연구결과

1. 기본 정보에 대한 분석

가. 발행처

다음 <표 3>은 국내 다문화 내담자 대상의 미술치료 논문들이 게재된 학술지들을 정리하여 관련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개별 논문들의 발행처 분류

미술(치료)	• 미술치료연구(16) • 한국예술치료학회지(9) • 예술심리치료연구(7) • 임상미술심리연구(3) • 한국미술치료학회(1)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1) • 조형교육(1)	심리·상담	• 재활심리연구(2)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1) • 가족과 가족치료(1) • 아동복지연구(1) • 상담학 연구(1)	교육및문화연구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2) • 한국동북아논총(1)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 • 동북아문화연구(1) • 다문화교육연구(1) • 한국가정관리학회지(1) • 청소년학연구(1) • 한국언어문화학(1)

※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출판 횟수임

‘미술치료연구’에 16편, ‘한국예술치료학회지’에 9편, ‘예술심리치료연구’에 7편, ‘임상미술심리연구’에 3편,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와 ‘재활심리연구’에 각각 2편이 투고되었다. ‘정서·행동장애연구’, ‘한국동북아논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동북아문화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다문화교육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청소년학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언어문화학’, ‘아동복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조형교육’ 그리고 ‘상담학연구’에 한 편씩 투고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다수의 논문이 투고된 ‘미술치료연구’는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한 미술치료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학술지에서는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분야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다.

나. 발행 연도

다음 <표 4>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관련 연구들은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다문화 대상보다 일찍부터 연구되어왔고, 한국 사회에서 다른 다문화 대상들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4> 연구 대상과 발행연도에 따른 다문화 미술치료 연구 경향

연구 대상	출판년도	횟수(%)	문헌 출처	대상에 대한 세부정보
다문화가정	2008~2017	22 (42)	정창숙(2017) 외	아동, 청소년, 가정 전체
중도입국청소년	2013~2017	6 (11)	모선미, 류정미, 오승진(2017) 외	중국계 자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2006~2018	13 (25)	김동옥, 이근매(2018) 외	폭력 피해여성

외국인 노동자	2007~2018	5 (10)	김예지, 최은영(2018) 외	외국인 노동자, 자녀
유학생	2010~2015	2 (4)	박수정, 박미향(2015) 외	재한 중국인 유학생
새터민	2008~2015	4 (6)	신민주, 최선남(2015) 외	여성, 자녀
난민	2014	1 (2)	유나래(2014)	아프리카 난민

<표 4>에서 보자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늦게 시작이 되었으나, 4배 이상의 양으로 증가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1년 일찍 시작했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보다 2배 이상의 양으로 진행되어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다른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 일찍 진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진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국내 다문화 내담자 간의 분류에 따라 연구의 경향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2. 연구 대상의 경향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따르면, KCI는 국내 학술지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술지 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평가에 의한 점수에 따라 일반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등재학술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국내 석·박사 논문을 제외하고, KCI 등재 논문 혹은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 <표 5>는 다문화 내담자 대상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관련 논문의 발행연도를 비교하였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2011년까지 활발히 진행되었고, 2016년까지 연구 진행이 소극적이었다. 2016년 후에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2012년 이후로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후에는 연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16년 이후로 다문화가정의 모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자녀의 사회생활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정진숙(2016)은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김경미, 이은주(2018)는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 송혜경, 문경아, 신주원(2018)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김가현, 장석환(2017)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근본적인 어려움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동옥, 이근매, 2018).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감정적 갈등을 유연하게 다루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주목하였다.

<표 5> 다문화 내담자 대상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관련 논문의 발행연도

대상 \ 발행연도 *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편수 (%)
다문화가정	·	·	1	2	3	4	3	1	2	·	1	2	3	22(42)
중도입국 청소년	·	·	·	·	·	·	·	1	·	1	2	2	·	6(11)
결혼이주여성	1	·	·	1	2	·	1	3	·	2	2	·	1	13(25)
외국인 노동자	·	1	1	·	1	·	·	·	·	1	·	·	1	5(10)
유학생	·	·	·	·	1	·	·	·	·	1	·	·	·	2(4)
새터민	·	·	1	·	·	·	1	·	1	1	·	·	·	4(6)
난민	·	·	·	·	·	·	·	·	1	·	·	·	·	1(2)

* 발행연도는 2000년대이며, 연도 기입 시 첫 두 자리 20을 생략함.

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연령대를 정리하기 위하여, 에릭슨(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모형을 참고하였다(Erikson, 1977). 본 연구는 에릭슨의 발달단계모형에 따라 연령대를 분석해보았다. 53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의 연령대는 만 2세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었다. 연구 대상들은 초등학교 아동기 (6세~12세)에 속하는 참여자부터 성인후기(65세 이상)에 속하는 대상들도 포함되어있다. 이 분석결과는 미술치료가 전 연령대를 아뢰어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초등학교 아동기에 속하는 대상은 주로 부모와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부모(특히 모-자관계)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발전(김유리, 오종은, 2013; 오가영, 2011)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과 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다(박선희, 2010). 반면에, 성인초기부터 성인후기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연구 대상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대 폭이 특히나 다양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참여자의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었다.

나. 표본의 크기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담자 수, 즉 표본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은 총 53편이다. 한국 다문화 인구 대상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관련 논문들을 위주로 개별 프로그램의 연구 대상 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논문의 연구 대상 수의 평균은 약 7명이었다. 분석대상 논문들에 따르면, 가장 적은 연구 대상은 한 명이었다. 반면, 가장 많이 참여한 연구 대상은 20명이었다.

다문화 내담자 대상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특성별로 표본의 크기가 변화함을 발견하였다. ‘집단미술치료’를 논문의 제목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연구들은 총 33건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집단미술치료'를 제목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2명 이상인 연구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문들은 총 10편이었고, 그 외에 연구들은 가족과 같이 참여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가족이 함께 참여한 미술치료 관련 연구(임영아, 김용섭, 2012), 새터민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와 아동(양윤정, 2014), 부모와 자녀가 참여한 연구(오가영, 2011)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가 1명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한 연구(김경미, 이은주, 2018; 송혜경, 문경아, 신주원, 2018; 정창숙, 2017),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신민주, 최선남, 2015), 새터민의 아동(김정미, 2008)에 대한 연구가 있다.

3. 연구방법의 경향

가. 연구방법론

한국의 다문화 인구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론은 혼합 연구방법론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 논문들에서 양적 연구방법론이나 질적 연구방법론이 아닌 혼합 연구방법론이 주로 사용되어왔기에, 연구자는 연구방법론 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미술치료 분야의 연구에서 연구방법론을 정의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 분야 특성상 분석기준을 토대로 연구자의 주관대로 작품에 대하여 분석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기에, 이러한 분석방법은 양적 연구방법론보다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가깝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내담자가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별 회기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연구자의 주관으로 기술해야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방법론보다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가깝다고 정의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많은 논문들이 설문지 척도를 이용했다. 동시에 미술치료 프로그램 속 내담자의 역동을 표현하기 위해, 연구자는 주관대로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별 회기에서의 역동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혼합 연구방법론으로 정의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들을 토대로 분석하였을 때, 양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의 수는 15편(약 28%),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논문의 수는 6편(약 11%) 그리고 혼합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은 32편(약 6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구성된 혼합 연구방법론이 연구를 분석함에 완성도를 높여줄 방법임을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논문들은 미술치료 개별 회기에서 연구 대상의 행동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신민주, 최선남(2015)은 자전적 문화기술

지 연구방법으로, 연구 대상이 미술치료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진솔한 만남을 갖는 과정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김연신, 신지현(2010)은 해석학적 현상학의 접근으로 연구 대상의 체험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혼합 연구방법론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보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 척도를 프로그램 전・ 후로 운영함으로 양적 연구를 적용하였고, 프로그램 회기별 연구 대상의 행동변화를 기술함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다(김동옥, 이근매, 2018 외 12편). 또한, 설문지 척도와 함께 임상그림검사(예로 들면, K-HTP)를 프로그램 전・ 후로 운영함으로 양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고, 미술치료 프로그램 속 연구 대상의 행동 변화를 기술함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였다(송혜경, 문경아, 신주원, 2018 외 16편). 그 외에 박수정, 최연실(2010)은 이전과 유사하게 임상그림검사를 이용하였지만, 검사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림검사 속 참여자의 역동을 기술함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몇몇 연구들은 연구 분석방법으로써 특정한 연구방법론 사용함을 직접 언급하였다(홍은진, 이근매, 2014 외 7편).

나. 주요변수

다음 <표 6>는 미술치료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는 연구 대상별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부터 기대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로부터 저하될 수 있는 자아존중감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연구되었다. 다시 말해서,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다문화 내담자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표 6> 다문화 내담자 대상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비교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
다문화 가정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 결혼만족도, 친밀감, 자기개념 향상, 또래관계, 모-자 상호작용, 의사소통, 어휘력, 학교생활적응, 사회성, 자기표현, 정신건강
중도입국청소년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정서변화, 자아정체감, 이중문화스트레스, 정서표현
결혼이주여성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임파워먼트, 감정표현불능, 문화적응스트레스, 미술표상능력, 대처능력, 불안, 우울
외국인 노동자	자아탄력성, 불안,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개방
유학생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자기효능감
새터민	적응 경험, 우울, 불안, 자아개념, 학교생활 수행, 문화적응 스트레스
난민	외상치유

<표 6>에서 제시된 변수들은 다문화 내담자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들을 정리하여 분류한 것이다. 이 변수들은 주로 양적 연구방법론 혹은 혼합 연구방법론을 위한 자료로써, 프로그램 전·후를 통해 발생한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다문화 내담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4.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가. 치료기법의 융합여부

다음 <표 7>은 치료기법의 융합 연구의 개입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 내담자 대상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치료기법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다문화 내담자 대상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치료기법

대상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치료기법(치료기법 적용 횟수)
다문화가정	①상호작용 미술치료(1) ②현실요법(1) ③덕목 연계 미술치료(1) ④치료놀이(1) ⑤활동중심(1)
중도입국청소년	①콜라주(2) ②섬유매체(1) ③난화이야기(1)
결혼이주여성	①해결중심 미술치료(1) ②색채반응(2) ③콜라주(1) ④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1)
외국인노동자	①해결중심 미술치료(1) ②사이코사이버네틱 모델(1), ③단기집단미술치료(1)
유학생	①인지적 미술치료(1)
새터민	①가족미술치료(1) ②아동중심미술치료(1)
난민	①공동체 기반의 예술치료(1)

본 연구에서는 총 53편의 논문 중 21편을 토대로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치료기법의 융합여부를 분석하였다. <표 7>에 따르면, 국내의 박사논문에서 미술치료와 융합된 치료기법 중 2회 이상 적용된 기법은 콜라주 기법(3건), 색채반응(2건), 해결중심 미술치료(2건) 이었다. 그 외에 모든 기법들은 1회씩 사용된 기법들이고, 상호작용 미술치료, 현실요법, 덕목 연계 미술치료, 치료놀이 등이 15개의 다양한 치료기법이 있다

다음 <표 8>에 따르면, 다문화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구성된 치료기법에 따른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다문화 내담자 대상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치료기법의 특성

연구대상	치료기법의 특성
다문화가정	① 원활한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변화 ② 내담자의 삶을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선택에 책임을 주고, 현재 행동에 집중하여 내담자가 얻고자 하는 것에 집중 ③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덕목을 얻도록 도움, 학교생활에서 규범과 가치 의미의 중요성을 이해, 실천의지 함양 ④ 건강하고 적극적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를 촉진 ⑤ 내담자의 나이(초등학생)시기에 매체 사용이 중요하기에, 공간 개념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조형매체를 이용하여 활동
중도입국청소년	① 심리적 요인 표출이 원활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절. 심리적 퇴행, 개인의 내적 어려움, 카타르시스 경험 등을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 ② 매체의 촉감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 자아정체감 도움 ③ 표현의 자극제 역할, 표현된 미술작품을 통하여 이야기를 만듦으로 자발적으로 탐색, 정서적 안정, 심리적 만족감, 한국어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난화는 상호작용에 도움
결혼이주여성	①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하여 효율성을 높여 거주기간이 길지 않은 대상에게 적절, 해결중심 상담과 미술치료와 결합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향상 ② 색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표현 ③ 잡지에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잘라 붙이는 것이 자기표현 ④내담자의 마음 속 억제되어 있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움
외국인노동자	① 내담자가 원하는 해결책에 집중하여 결과적으로 해결책은 본인에게 있음을 강조,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자원을 조명 ② 불안 수준 낮춤, 목표 지향적 행동 증가, 자아존중감 향상 ③ 내담자의 일상생활에 간섭을 줄임, 경제적이며 효율적
유학생	①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다루는데 사용되는 적극적·지시적이며 시간 제한적인 방법
새터민	① 가족원간의 문제를 조명하여 가족 간의 문제가 변화 ② 아동을 중심으로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
난민	①개인적 비극을 집단적 동일시를 하여 서로 공유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표 8>에 따르면,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다문화 내담자가 치료환경을 수용하여, 제한된 시간동안 치료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문화 내담자별 치료목표와 주호소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변화하였다. 프로그램은 내담자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프로그램 참여 촉진을 위해 설계되었다.

나. 회기

53편의 논문 중 한 편은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연구보다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경험에 대한 연구이기에 회기에 대한 분석

에서는 제외되었다(최은미, 2018).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심리학적 미술치료를 진행하였지만, 구체적인 회기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제외되었다(조경덕, 2011). 또한 문양만다라와 색채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구체적인 회기 계획에 대하여 제시하지 않았기에 제외되었다(정영숙, 2016). 그리하여 총 50편의 논문을 토대로 미술치료 프로그램별 회기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다문화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은 약 13회의 회기로 구성하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들 중 가장 회기가 짧았던 것은 6회기였고, 가장 길었던 프로그램은 23회기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내담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가 유연하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핵심어

한국 다문화 인구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들을 토대로 핵심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단미술치료’ 핵심어는 34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연구 대상 수가 한명이 아닌 그 이상임을 가리키고 있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집단의 역동을 살펴볼 수 있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스’에 관한 핵심어 또한 광범위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이중문화 스트레스’는 2개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7개였다. 그 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하나씩 언급되었다. ‘자아존중감’은 10개, ‘자아탄력성’은 5개였다. 다문화 내담자의 현황과 관련된 ‘정신건강’은 1개, ‘불안’과 ‘우울’은 각각 4개씩 발견되었다.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핵심어는 ‘질적 분석’, ‘사례 연구’ 그리고 ‘자전적 문화기술지’가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방법, 기대 효과와 연구 대상에 대한 핵심어들은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어 분석은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에 대한 연구들 간의 주요 동향을 탐색을 돕는다.

<표 9> 다문화 내담자 미술치료 관련 논문의 핵심어 분류

미술치료 프로그램	연구 대상	프로그램 기대 효과
• 상호작용미술치료 • 가족미술치료 •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 난화/이야기 만들기/구성 •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 사이코사이버네틱 미술치료 • 인지적 미술치료 •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 문양만다라/색채반응성심리	• 언어발달지체 • 다문화가정 아동 • 다문화가정 자녀 • 중도입국청소년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 북한이탈여성 • 새터민 학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자녀	•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어휘력 • 결혼만족도/가족관계 만족도 • 자기표현/미술표상능력 • 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 • 정서표현/정서변화 • 학교생활적응/덕목/또래관 계/사회성

치료 • 활동중심 집단미술치료 • 빗속 사람 그림 검사 •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 • 동적 학교생활화(KSD)	• 결혼이주여성/자녀 • 다문화가정 ADHD 아동 • 아프리카 난민 여성	• 문제행동개선/감정표현/자아분화 • 임파워먼트 • 외상치유

<표 9>은 다문화 내담자의 특성과 프로그램으로부터 기대하는 효과에 따라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다문화 내담자의 주호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주호소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치료기법이 융합되어 구성되어졌다.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국내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내담자별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Ⅴ.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국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학술지 논문을 토대로 문헌 연구 분석을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분석 준거를 개발하고, 분석대상에 대해 자료수집과 대상별로 분류를 하였다. KCI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위주로 탐색하였고, 총 53편의 분석 대상 논문을 준거 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들을 분석틀을 토대로 발행연도, 연구 대상, 연구방법론, 프로그램에 따라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적으로 논의 및 제언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연구방법에 관한 동향은 기본정보(발행연도, 발행처), 연구 대상, 연구방법(연구방법론, 주요변수), 프로그램(치료기법의 융합, 회기, 핵심어 분석)의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발행연도 관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2011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이후 2016년까지 연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이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가 다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이후로 다문화가정의 모에 대한 연구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016년 이후의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자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녀의 사회생활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정진숙(2016)은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김경미, 이은주(2018)는 또래 관계개선을 위해, 송혜경, 문경아, 신주원(2018)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위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표현예술치료 연구동향을 분석한 류진아(2018)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학술지 논문을 탐색한 결과, 다른 내담자와 비교했을 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이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총 53편의 국내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관련 논문들에 따르면, 논문 발행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다. 그들은 미술치료와 미술, 심리・상담, 교육 및 문

화 연구로 나뉘어졌다. 미술치료와 미술 대분류에 따르면, 미술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이 가장 많았고, 한국예술치료학회지, 예술심리치료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그 외에 한국미술치료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조형교육 순이었다. 심리·상담 분류에 의하면, 재활심리연구, 그 외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가족과 가족치료, 아동복지연구, 상담학 연구 순이었다. 교육 및 문화 연구 대분류에서는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한국동북아논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동북아문화연구, 다문화교육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청소년학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순이었다. 총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학문에서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에 주목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술치료연구 관련 학회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관련 학회에서는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셋째,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의 주요변수와 치료기법의 융합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할 수 있다. 주요변수에 대한 결과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결혼이주여성은 공통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향상을 요구하였다. 향상된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요소이다. 즉,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내담자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른 논문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상호작용 접근이 소통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2개 이상의 언어를 요구함으로서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 외에도 그리고 자녀를 위한 시기적절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자녀의 언어 발달이 지체되기도 한다. 그러한 내담자에게 상호작용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자녀와 그의 교사와의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소통의 질을 향상시켰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덕목연계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구현되었다(정진숙, 2016). 그 프로그램은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 외에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콜라주(왕금미, 김영순, 김미순, 2016) 기법을 이용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구현되었다.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새로운 환경에 거부감을 경험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에게 다양한 재질의 오브제를 이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킨다(김말숙, 2002).

넷째, 논문의 핵심어들 중 집단미술치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집단미술치료는 다문화 내담자들이 회기 속에서 서로 격려를 하여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핵심어는 연구들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중문화 스트레스, 그 외에 대처에 대한 핵심어가 언급되었다.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이 빈도 높게 언급되었다.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내담자들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부터 기대하는 효과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트레스 대처를 목적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참석하였다.

국내 정규 미술치료 관련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이수은(2011)은 다수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내담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들도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연구 대상은 다문화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유학생, 난민 순이었다. 이 결과는 국내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06년도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지만,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에 편중되었음을 나타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2007년부터 진행되었고 이는 상대적으로 일찍 진행되어왔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내담자별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되어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연령대는 만 2세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연령대에 제한 없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에 따른 연령대의 변화가 있었다. 예로 들면, 김가현, 장석환(2017)은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령대는 만 2세부터 6세까지이다. 오가영(2011)은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모-자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2명이었고, 만 4세의 자녀와 30대 초반의 모이다. 그에 반면, 프로그램 속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연령은 비교적으로 높고 다양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론 관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혼합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에 비해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된 논문들의 양이 부족하다. 미술치료가 심리학의 한 영역인 만큼, 미술치료와 관련된 많은 논문들에서 양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었다. 논문들이 양적 연구방법론을 차용하여, 연구 대상의 심리적 어려움을 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문지들은 미술치료 프로그램 전·후로 실시되었고, 설문지 문항으로부터 계산된 수치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방법론만을 사용하였을 때 한계가 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집단의 역동을 분석해야 하는 연구만큼,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수치화하여 검증하는 방식이기 보다는, 연구자가 개입해 상호작용을 해석하여 기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에 밀접하다.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혼합 연구방법론이 널리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논문들에서는 혼합 연구방법론이 가장 많이 쓰였다. 혼합 연구방법론은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한 검증과 내담자 간의 역동과 그들의 행동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의 국내연구 동향은 이와 같은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기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련한 연구들을

따르면, 국내 다문화 배경을 지닌 인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의 유형에 따라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변화가 존재한다. 예로 들면, 중도입국청소년은 본국에서 가정해체의 경험을 겪고, 모국에서는 과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들은 다른 문화권에 지내면서 자아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며, 본인의 정서표현에 소홀해지기도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다른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의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 내담자들 공통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스트레스 등 스트레스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다. 연구자는 내담자의 주호소를 다루기 위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 시 다문화 내담자별 상황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미술치료 관련 논문들이 국내 다문화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반영해왔던 것처럼, 향후 연구들은 그들의 주호소를 파악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둘째, 미술치료 프로그램 속 과정에서 다문화 내담자의 역동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방법론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미술치료 관련 연구들은 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적 연구방법론만을 적용한 논문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기 위해 검증하기 위한 척도를 사용하여 미술치료의 전·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객관적인 수치만을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내담자 간 역동을 탐색하기 어렵다.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 및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적 분석은 요구된다.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한 검증과 내담자의 역동 분석 및 행동 변화를 위해 혼합 연구방법론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연구방법론은 여전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속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 내담자의 행동변화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연구방법론의 발전으로 인해 연구의 질이 향상될 거라 예상한다.

셋째,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은 학교 적응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1.29)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2013년 이후로 침체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2016년 이후로 급증하고 있다. 2016년 이후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의 자녀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주여성의 자녀들은 국내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에,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향후 미술치료 관련 연구들은 세대 간 이어지는 적응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 이주여성의 자녀들 관련 연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참고문헌

기정희, 이숙미, 김춘경, 정종진, 최웅융 (2011). 한국 미술치료의 연구동향-한국미술치료학회지 게재논문(1994~2010)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18**(2), 463-483.

권복순 (2010).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7**(6), 1411-1430.

김가현, 장석환 (2017).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력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0**(1), 29-48.

김경미, 이은주 (2018).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8**(2), 161-181.

김동옥, 이근매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8**(2), 1-22.

김말숙 (200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진, 강영주 (2014). 아동미술치료 프로그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10**(3), 87-109.

김선현, 류경희, 최순주 (2009). 임상미술치료가 다문화가족 폭력 피해여성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조형교육**, **35**, 53-78.

김연신, 신지현 (2010). 결혼이주여성의 집단미술치료 체험: 해석학적 현상학의 접근으로. **미술치료연구**, **17**(4), 975-997.

김예지, 최은영 (2018).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외국인 근로자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5**(6), 749-768.

김용숙, 성영란, 유지은 (2015). 유아 다문화교육 연구동향-KCI 등재 논문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403-422.

김유리, 오종은 (2013). 다문화가정의 모-자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Bowlby 애착이론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3**(1), 41-64..

김정미 (2008). 아동중심 미술치료를 통한 새터민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수행 향상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5**(2), 275-294.

김종훈 (2014). 다문화교육 분야의 교사 관련 연구동향 분석: 현황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4), 81-1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2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8년 12월호].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330에서 2019년 5월 29일 인출.

류진아 (2018). 다문화 내담자를 위한 표현예술치료 개입 연구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755-771.

모선미, 류정미, 오승진 (2017).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7**(1), 175-186.

박선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25-51.

박수정, 박미향 (2015). 인지적 미술치료가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2**(1), 181-200.

박수정, 최연실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동적 학교생활화(KSD)에 의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1-18.

신민주, 최선남 (2015). 미술치료과정에 나타난 북한이탈여성의 적응 경험에 관한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 **미술치료연구**, **22**(5), 1505-1524.

송혜경, 문경아, 신주원 (2018).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9**(1), 135-150.

양윤정 (2014). 가족미술치료가 새터민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임상미술심리연구**, **4**(1), 97-121.

오가영 (2011). 다문화 가정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및 모-자 관계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치료놀이를 적용한 모-자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18**(3), 509-527.

오영섭, 김영순, 왕금미 (2018). 이야기치료의 국제적 연구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학치료연구**, **48**, 41-74.

왕금미, 김영순, 김미순 (2016).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참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1017-1039.

왕금미, 오영훈 (2016).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동북아문화연구**, **49**, 173-192.

유나래 (2014). 공동체 기반의 예술치료를 통한 국내 아프리카 난민 여성들의 외상치유에 대한 집단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1**(2), 331-361.

이경원 (2013). 인지발달과 자아 방어기제의 평가도구로서 리빅 정서인지 미술치료 평가도구(LECATA)사례연구. **조형교육**, **46**, 227-254..

이근매 (2014).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경기: 양서원.

이수은 (2011). 국내 정규 미술치료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연구 동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1**(2), 95-135.

임영아, 김용섭 (2012). 한국 다문화가정의 의사소통 문제해결에 가족미술치료가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64**, 329-353.

임은미, 정성진, 김은주 (2009). 국내 다문화 연구와 다문화 상담 연구의 현황. **상담학연구**, **10**(3), 1291-1304..

정여주 (2016). 미술치료에서 미술의 특성과 창의적 과정의 치료적 의미. **미술치료연구**, **23**(5), 1221-1237.

정영숙 (2016). 다문화여성의 자아분화와 색채반응성 유형. **재활심리연구**, **23**(4), 691-708.

정진숙 (2016). 다문화가정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덕목 연계 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 **예술심리치료연구**, **12**(2), 23-48.

정창숙 (2017). 상호작용 미술치료활동이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8**(1), 103-120.

조경덕 (2011). 다문화 가정 아동 대상의 인지심리학적 미술 치료 사례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8**(1), 159-173.

최은미 (2018). 다문화 가정의 미술치료 경험 및 요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 495-506.

홍은진, 이근매 (2014). 활동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임상미술심리연구**, **4**(2), 115-145.

Choudhuri, D. D., Santiago-Rivera, A. & Garrett, M. T. (2012). *Counseling & Diversity* (1st ed.). 오인수 역 (2015). **다문화상담**. 서울: 박학사.

Erikson, E. H. (1977). *Childhood and Society*. London: W. W. Norton & Company.

Waller, D., & Dalley, T. (1992). Art Therapy: a Theoretical Perspective. In D. Waller, & A. Gilroy (Eds.). *Art therapy: a handbook* (pp. 3-24).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Yalom, I. D., & Leszcz,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5th ed.). New York: Basic Books.

논문 접수: 2019년 6월 12일
논문 심사: 2019년 8월 5일
게재 승인: 2019년 8월 20일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search Tendency of Domestic Art Therapy for Cli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Kim Sumin(Inha University)
Kim Youngsoon(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sign and effects of the art therapy program by making analysis framework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clinical · theoretical foundation for introducing the programs for multicultural clients. This study did an literature review based on a journal paper. These papers were published from 2006 to 2018 and collected through the domestic database homepage, Riss. Dissertations were excluded from this study.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basic information(publication year, publisher), research subject, study method(research methodology, major variables), programs(convergence of therapy techniques, session analysis, keyword analysi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year of publication, research on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active since 2011, and conducted passively until 2016. After that,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on children of them. These results reflect that the children of them are experiencing psychological difficulties. Second, the difficulties of the client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main variables of the program for the clients and the convergence of treatment techniques on art therapy. Art therapy program based on their psychological difficulties will be more effective for them. Third, group art therapy was the most common among the key words in the thesis. The program was structured so that they could reach the goal by receiving encouragement among the members through the program. Finally, the amount of thesis to which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s applied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methodology. Most researches used questionnaires to statistically measure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the subjects. However, there is a limit to developing research when using only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n order to analyze the dynamics of the group, we must consider the advantage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 Key words: art therapy, client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exploratory study, group art therapy, psychological difficulty